

원산지 표시 확대...음식점 불만 고조

이번 주부터 쇠고기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이 모든 식당과 급식소로 확대되면서 음식점 업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음식점 업주 일부는 아직까지 표시방법을 제대로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고, 구이·탕·찜·튀김 등 쇠고기가 들어가는 모든 음식에 원산지 표기를 할 방법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음식점 업주들은 소량의 쇠고기가 음식에 들어가도 수입 국가 등의 원산지를 자세히 표기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메뉴판이 원산지로 도배될 처지에 놓였다"면서 "진짜 실용성이 있는 지 의문이다"고 입을 모았다.

“쇠고기 들어간 탕·튀김도 표시해야 하나” 표기방법 혼선 속 ‘식파라치’ 기승 격정

특히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에 한해 최대 2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됨에 따라 '식(食)파라치'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잔뜩 긴장하고 있다.

◇식당 업주들 '불만' 높아=6일 오후 광주시 서구 농성동 S식당. 불고기와 등심·갈비탕·비빔밥 등을 판매하는 66㎡ 규모의 이 식당 주인 K(63)씨는 원산지 표시 의무화에 대해 묻자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각 대상 품목에 표시는 해 놨지만,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메뉴판에는 '소갈비(국내산)' '등심(수입산)' '불고기(국내산)'이라는 깨알 같은 글씨가 쓰여져 있었다. 국내산은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한우·육우·젓소)를, 수입산은 수입 국가명을 쓰도록 돼있으나 국내산과 수입산만 구별돼있는 것이다.

K씨는 "구청으로부터 교육은 받았지만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서비스인 쇠고기 국까지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나"고 반문했다.

같은 날 오후 북구 용봉동 33㎡ 규모의 B분식점. 이 분식점에서 판매되는 메뉴 중 쇠고기가 들어가는 음식은 쇠고기 김밥과 볶음밥이 전부다. 메뉴판에는 별도의 원산지 표시가 돼 있지 않았다. 소량의 쇠고기가 들어간 음식까지 일일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식당 주인 L(여·38)씨는 "볶음밥에 조금 넣는 쇠고기까지 원산지를 표시한다면 식당 벽을 아예 도배해야 할 판"이라며 "설령 표시를 해도 볶음밥에 들어간 쇠고기 몇 점까지 알아낼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식파라치' 활개 우러=음식점 업주들의 격정은 이 뿐 아니다. 신고 포상금을 노린 전도 신고꾼들의 활동도 격정적이다. 정부가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식파라치들의 행동 반경이 넓어졌다. 이전에는 100㎡ 이상 대형 음식점에만 한정됐지만, 최근에는 모든 음식점 등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특히 영세음식점은 식파라치의 좋은 '먹잇감'이다.

북구 신안동 Y식당 주인 H(56)씨는 "단속기관에서도 국내산 육우인 지 수입산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데 우리라고 별수 있겠느냐"며 "식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릴 것이 뻔한데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2단계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광주·전남 98,784명 확정

만 65~69세 노인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지급되는 제2단계 기초노령연금 광주·전남지역 수급대상자가 9만 8천784명으로 확정됐다.

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만 65~69세 전체 노인인구 가운데 광주의 경우 30.6%인 1만4천784명, 전남은 70%인 8만4천명 이상이 이달부터 2단계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게 됐다.

광주는 지난 1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수급자 4만4천930명을 포함해 모두 5만9천714명이 기초노령연금 수혜자가 됐다. 이는 광

주 전체 노인인구 11만6천369명의 51.3%다.

전남도의 경우 1단계 17만명 포함 모두 25만4천명이 수급대상자에 포함돼 노인 전체인구 33만1천명 가운데 76.7%가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게 됐다.

시·도는 오는 11일까지 모든 기초노령연금 신청자에게 급여결정 통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부자격자와 감액연금 수급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채희중·윤영기기자 chae@



국토대장정 출발 전남대 학생 47명으로 구성된 '제2기 국토대장정 비상'이 지난 5일 전남대에서 발대식을 갖고 출발지인 여수를 떠나고 있다. 이들은 이날부터 20박21일 동안 여수 항일암에서 임진각까지 550여km를 걸은 뒤 개성공단을 둘러보고 돌아올 계획이다. <관련 인터뷰 20면> /최해기기자 choi@

결손가정 초·중·고생 전남 1만명 육박

전남도에 초·중·고교 재학생 가운데 결손가정 자녀가 1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 당국의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전남도교육청이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결손가정 자녀는 초등생 3천310명, 중학생 2천462명, 고교생 3천338명 등 모두 9천110명으로 지난해 8천824명에서 286명이 늘었다.

특히 학교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관내 1천400여개 대부분 학교에 결손가정 자녀가 다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당수 학생들이 결손가정

자녀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가정방문 등이 사라지면서 사실 확인도 여의치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학생에게는 소득 정도에 따라 학비와 급식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절대 다수가 생계를 꾸릴 마땅한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당국의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결손(缺損)가정은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했거나 이혼 등으로 미성년인 자녀를 제대로 돌볼 여건이 안 되는 가정을 말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여성 가장 홀로서기 돕기 '희망가게' 광주에 첫 발

저소득 여성 가장들의 '홀로서기'를 돕는 아름다운재단의 마이크로크레디트(무담보 소액대출) 사업 '희망가게'가 광주에 첫 발을 디뎠다.

광주시 북구 희망지역자활센터는 지난 24일 아름다운재단에 조성된 '아름다운세상기금'과 지역 협력 파트너 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희망가게 운영자 신청을 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희망가게 프로젝트는 저소득층 여성 가장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재단이 2004년부터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시행돼 왔으며 광주 지역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종형기자 galee@

TV 시청·컴퓨터 많이 하는 부모 '똥보 아이' 만든다

하루에 2시간 이상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는 부모의 자녀는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자녀가 비만일 확률이 2배 이상 높고, 군것질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도가 5배 이상이나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제대의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와 국립보건연구원 대사영양질량분석 서울과 과천에 사는 초등학생 1학년생 121명(과체중 50명, 정상체중 71명)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부모의 비만도가 높을수록 자녀가 과체중일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아버지의 생활습관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의 생활습관 가운데는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과자 등의 군것질 빈도가 1주일에 3일 이상인 경우 2일 미만인 부모에 비해 아이의 비만 위험도가 5.8배나 높아졌다. 또 하루에 2시간 이상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아버지의 자녀가 비만해질 위험도는 2시간 미만인 경우에 비해 2.1배 높았다.

/연합뉴스

잠 못 이루는 밤 7월 7일 (음 6월 5일) ◇전국날씨

광주	구름 조금	24~31℃
전남	구름 조금	23~27℃
전북	구름 많음	22~27℃
충청	구름 많음	22~29℃
경상	구름 조금	22~32℃
강원	구름 많음	23~29℃
제주	구름 많음	22~30℃
서울	구름 조금	22~31℃
부산	구름 조금	24~29℃
대구	구름 많음	23~29℃
인천	구름 조금	24~32℃
대전	구름 조금	23~32℃
울릉도	구름 조금	23~32℃
독도	구름 조금	18~24℃

서울날씨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뒷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남해날씨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뒷바다=남서~서풍 파고 0.5~1.5m
목포 밀물 < 05:19 썰물 < 10:26
> 17:24 > 22:30
여수 밀물 < 12:01 썰물 < 05:53
> 18:00

▲해돋이 05:24 ▲해질 19:50 ▲달돋이 09:47 ▲달질 22:40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8(화)	9(수)	10(목)	11(금)	12(토)	13(일)
날씨						
최저/최고	23/30	23/31	23/29	22/27	22/28	22/29

광주 올 첫 열대야

어제 새벽 25도 등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7일 최저기온은 24도로 예상돼 열대야 현상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전남 지역은 오는 9일까지 낮 최고기온이 31도를 오르내리는 등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11일부터 장맛비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열대야 현상=하루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더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할 때 밤에 복사냉각의 효과가 감소해 나타나며, 특히 도시의 열섬현상이 열대야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안 등 기름방제 주민인건비 28억원 이달말까지 지급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사고로 피해를 본 무안·신안·영광·진도지역에서 방제작업을 벌인 주민의 인건비 2개월분 28억여원이 이달 말까지 우선 지급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타르 방제업체 등이 최근 국제기름오염 보상기금(IOPC Fund)에 방제 인건비 1~3월 3개월분을 청구한 결과, 1~2월 2개월 분 28억여원이 심의를 통과해 인

가깝고 편안하고 아릅답고...곳!!!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선일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1. 선일부모의 묘지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2. 선일부모의 묘지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3. 선일부모의 묘지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7년 후엔분묘교체할 무동산·분묘정사 납입금 혜택 등 분묘관리 02-229-0100, 02-229-4004, 02-779-0700

보람상조와 함께 일 새가족 모집합니다

보람상조는 새가족을 모집합니다. 보람상조와 함께 일 새가족 모집합니다.

보람상조는 새가족을 모집합니다. 보람상조와 함께 일 새가족 모집합니다.

보람상조는 새가족을 모집합니다. 보람상조와 함께 일 새가족 모집합니다.

보람상조는 새가족을 모집합니다. 보람상조와 함께 일 새가족 모집합니다.